

사진기자의 단상

휴가에 포상금까지... '병들의 전쟁'



베이징 올림픽의 열기로 지구촌이 뜨겁게 달아올랐던 2008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 겨울 이색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이름하여 '2008 SF(Special Force) 밀림픽(Milympic)'. 최강 전사를 꿈꾸는 특전사대원들의 올림픽이 지난 달 26~27일 담양군 특전사 황금박쥐부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전투스포츠의 축제 현장에서는 턱걸이,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외줄오르기, 평행봉, 5km 달리기 등의 개인 6종 경기와 특공무술 경연대회, 군인 가족 계주, 치어리더 공연 등이 풍성하게 펼쳐졌습니다.

개인 6종 경기 중 하나인 '윗몸일으키기'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현장에서 건장한 두 장병을 만났습니다. 잔뜩 상기된 얼굴, 굳게 다문 입이 치열한 경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매일 혹독한 훈련을 견뎌내는 이들에게도 우승을 향한 경쟁은 쉬운 일이 아닌가 봅니다. 게다가 우승자에게는 3박4일의 달콤한 포상휴가와 포상금까지 준비되어 있는 만큼 이 청년들은 젖먹던 힘을 다해, 그러한 가족들 얼굴을 떠올리며 오뎅이처럼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났습니다.

물론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1등의 영예는 한 명에게만 돌아왔습니다. 올림픽에서 고개를 숙인 은메달리스트의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경기에 나선 이들이 모두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최고를 위한 최고가 아닌, 최선을 위한 최선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오늘의 유머

■흰머리가 되는 이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엄마에게 물어보았다.

“엄마, 왜 엄마 머리에 흰머리가 있어?”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말했다.

“그건 말야. 네가 뭔가를 잘못해서 엄마가 속이 상하거나 또는 슬퍼지게 되면 머리카락이 하나씩 하나씩 흰머리가 되는 거란다.”

그러자 아이가 한참 생각하더니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등문서답

한 사람이 버스에 타서 물었다.

“아저씨 이 버스 어디로 가나요?”

“네, 앞으로 갑니다.”

“네? 그럼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차안입니다.”

“아니 아저씨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운전합니다.”

■여자와 남자

한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버림 받은 뒤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정말 슬프군. 그녀가 가벼웠어. 그것도 나보다 훨씬 못한 녀석한테 말야!”

“힘내. 세상의 절반은 여자인데 뭐 그렇게 상심하고 있어?”

그러자 남자가 더 슬픈 얼굴로 대답했다.

“그건 나도 알아. 그럼 뭐하겠어. 나머지 절반은 다 경쟁자인데...”

■예술과 외설의 차이

1. 보고나서 눈물을 흘리면 예술, 군침을 흘리면 외설.

2. 보고나서 마음에 변화가 있으면 예술, 몸

에 변화가 오면 외설.

3. 볼륨을 키우면서 보면 예술, 줄이면서 보면 외설.

4. 친구한테 비디오 테이프 빌려줘서 돌아오면 예술, 안 돌아오면 외설.

5. 안 봤는데도 본 적하면 예술, 봤는데도 안 본 적 하면 외설.

6. 비디오 그냥 들고 나오면 예술, 까만 봉지에 넣어오면 외설.

7. 처음부터 봐야 이해가 되면 예술, 중간부터 봐도 이해되면 외설.

8. 자막이 필요하면 예술, 필요없으면 외설.

9. 외설이라 광고하면 예술, 예술이라 광고하면 외설.

■면도의 효과

아침에 남편이 깔끔하게 면도를 한 뒤에 아내를 보면서 말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수업을 꾸고 나면 10년 젊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야. 당신 보기에 어때?”

그러자 아내가 통명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래요. 그런데 기왕이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깎지 그래요!”

■사랑의 매

특하면 싸움을 하는 초등학교 남매가 있었다. 어느 날 남매가 또 심하게 싸우자 엄마가 사랑의 매를 들기로 했다.

화가 난 엄마는 먼저 큰 애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너 자꾸 동생하고 싸울 거야? 친하게 지내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

차마 매를 들지 못한 채 엄마는 책가방을 몇 번 내리치면서 큰 소리로 꾸짖을 했다.

“엄마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싸우지 않고 잘 지낼게요.”

아이의 대답을 들은 엄마가 밖으로 나와 작은 애를 찾았다. 그런데 작은 애는 이미 냉정하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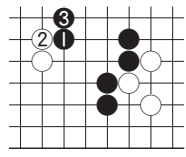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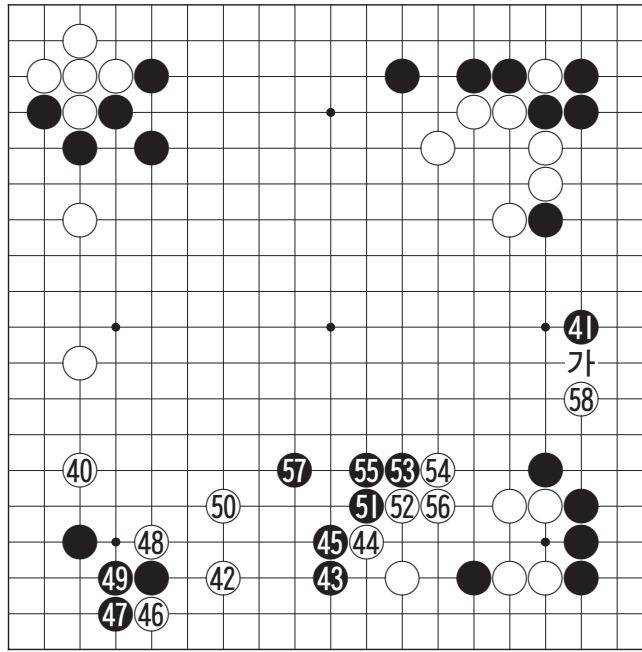
제89회 전국체전바둑대회

우려하던 침입

여성부 결승전 3보(40~58)

백 조경진 5단 흑 박지선 5단

(경기도) (경기도)



<참고도>

최근 강동윤 8단의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강원랜드 명인전 결승에 올라 랭킹1위 이세돌 9단과 결승 5번기를 앞두고 있는가 하면 천원전에서도 이세돌과 격돌하며 천하를 건 10번기를 벌이고 있다. 특히 농심신라면 배 단체전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강자들을 연파하며 5연승을 거두는 등 맹활약하며 바둑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어 앞으로의 활약이 크게 기대된다.

백 40과 흑 41은 맛보기의 곳이다. 그런데 41은 '가'에 두어야 했던 곳으로 박지선 5단이 '가'에 두지 않고 조금 욕심을 부려 41에 둔 것이 나중 호된 추궁을 당하게 된다. 백 42와 좌화구에 49에 붙이는 뒷맛을 노리는 수로 매우 큰 곳이며 흑 43은 강력한 침입이다. 조경진 5단은 아깝지만 백 48까지를 교환하고 50으로 뛰어 나간다. 흑 57이 소극적인 수였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3까지 왼쪽을 압박해야 했다. 흑 41이 우려하던 침입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 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엘도라도리조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2일(음 11월 5일 丙子)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DermaPlast) featuring a woman's face and contact information: (주)호원약품 062-383-5883

Table with 4 columns for language learning: 1. What did you borrow from him? (English/Korean), 2. 畳(たたみ)の部屋ですね. いい匂(におい). 다다미방이군요. 냄새 좋다 (Korean/Japanese), 3. 不要了. 원하는 게 없습니다 (Chinese), 4. 十年寒窓(십년한창) 열심, 해녀, 찰한, 창창 (Korean/Chinese).